조계종, 선암사 '정체성 회복' 전방위 대응 나선다

3월 3일 대책위 상임위 1차 회의서 결의

대법원 판결 관련 현안 공유
조직 구성 · 활동계획 구체화
사법부 판결 규탄 본격 착수
선암사 본사 지위 회복 추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이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 뿐 아니라 그간 자제해 온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호계원장 무상,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 임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집행부 부실장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의 경과보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사말,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논의, 입장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스님들은 대책위 명칭을 '(가칭)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대책위원회(조계종선암사 대책위)'로 정하고, 향후 대책위를 중심으로 종단적 역량을 결집해 법적 대응과 종단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대응은 물론 조계종 선암사의 종단적 지위 회복 및 실체적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조직은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를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을 지도위원으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계종은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임원 및 호남지역 본사 주지, 중앙종회 임원 등 25명을 중심으로 한 상임대책위원회를 꾸려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금곡 스님을 집행위원장으로 한 집행위원회와 각 기관 실무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꾸릴 방침이다. 180여명 규모의 대책위원회 전체 구성은 상임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적으로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직할교구 소속인 선암사를 다시 교구본사 지위로 회복하는 한편, 중앙종회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선암사에 한해 제적교구본사 중복 취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암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화결사단 조직도 논의됐으며,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 성명 및 입장문 발표 행보를 조직화하고 전국 주요사찰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도 채택했다.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는 이날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법을 바로세우겠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채택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명맥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위한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공표했다.

특히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차체험관 철거소송 주심을 맡아 처리한 대법관과 해당 대법관의 임명을 추진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태고종 선암사가 제기한 등기말소소송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조계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재판부 구성에 따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은 1962년 출범 당시 한국불교 역사와 수행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과감히 벗어던진 청정교단으로 국가가 인정한 유일무이한 종단이었다"며 "이러한 종단의 정체성 지난 시간동안 조금씩 국가의 시책으로 위협받고 급기야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본 판결은 한국불교를 다시금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기에 소명을 받은 소임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차체험관 철거소송'의 심리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의 변론기일은 4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행 스님, "사찰 종부세 등 현안 살펴야"

3월 3일 조현래 종무실장 예방서
전사법 취지 역행 법령 검토 요청


문화관광체육부 조현래 신임 종무실장은 3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공적 역할을 배제한 일부 현행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가운데, 2022년부터 전통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교계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화관광체육부 조현래 신임 종무실장에게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령들에 대해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3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현래 신임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언급하며 "전통사찰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럼에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2년부터 전통사찰까지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전통사찰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지만 현행법과 정책대로라면 그 취지가 무색한 것을 물론, 수행환경을 오히려 침해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서로 잘 협의해서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과 만당 스님도 "종단 차원에서 전통사찰 등과 관련한 국가법령제개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국가법령제개정위원장 만당 스님(중앙종회 부의장)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 도반, 불교달력 사진 공모전

3월 3일~4월 9일 접수
2022년 달력제작 활용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불교달력 제작에 활용될 사진과 작품을 공모한다.

조계종 ㈜도반유통 달력사업부는 3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조계종 2022년도 불교달력 사진 및 작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도반유통이 제작 · 판매해 온 불교달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제작 수준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사찰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신청기준은 사계절을 담은 사진과 작품, 사찰 및 불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과 작품이다. 미술작품은 수채화, 유화, 수묵화, 펜화,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등이며, 시화나 시집, 좋은 글귀 등 문학작품도 출품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유롭게 테마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달력 제작 용인만큼 한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테마당 6~12컷, 사계절 구성의 사진과 작품을 출품할 경우 선정 확률이 높다.

대상은 테마 12컷 기준 상금 350만원, 금상은 테마 12컷 기준 250만원, 은상은 테마 12컷 기준 200만원, 6컷 기준 100만원이다. 동상은 태마 12컷 기준 100만원, 테마 6컷 기준 50만원이 상금으로 전달된다. 입선작은 컷당 별도 지급된다.

도반유통측은 "도반 달력사업부는 매년 품격높은 작품을 선별해 다양한 테마의 기성달력을 전국사찰에 제작 · 납품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높이고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인만큼, 사찰 홍보와 포교활동은 물론, 작가들의 작품활동과 홍보에도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마주협, 미얀마 군부에 "강경탄압 중단" 촉구

3월 3일 입장문 발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태가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호산, 이하 마주협)가 미얀마 군부에 강경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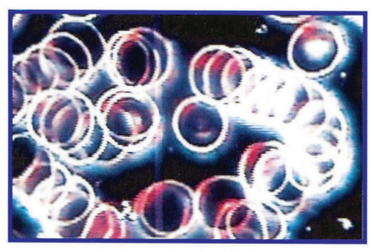
조계종 마주협은 3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는 군부 쿠데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이뤄내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이미 자리 잡은 민주화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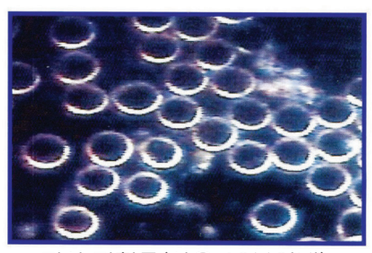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이에 마주협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정부 지도자들의 즉각 석방과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탄압 중단 △법적으로 선출된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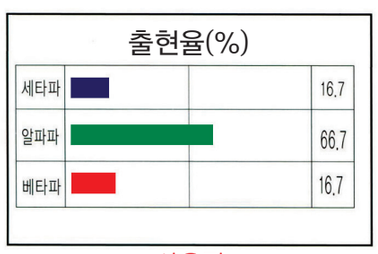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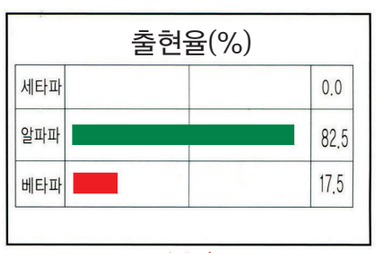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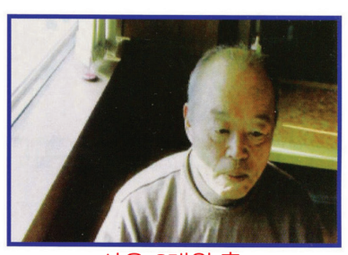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 축농증, 비염 완화 및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